



경쟁력 강화 · 농업인과 함께 우량기업으로 도약 할 것

앞선 기술, 고도성장, 환경친화, 고객중심의 '아그로탑 21운동' 지속 전개
50여년의 농약역사 최green 빛나, 농업인과 동반성장으로 신뢰받는 기업

본 격적인 휴가시즌이다. 매년 이맘때면 번
인들은 자연을 찾아 그들과 벗하러 휴가
라는 반복적인 삶을 갈구한다. 그럴 즈음 자연은
잠시 헤이해진 인간들에게 수해, 설해, 풍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용을 과시한다. 그 위용 앞에
만물 영장들은 잠시나마 겸허함을 배운다. 그럼
으로써 자연과 벗하러 함이 사치임을 알고는 사
위(四圍)를 둘러본다.

올해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
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일곱 번째의 장
(場). 영남과 호남, 수도권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원료반입과 제품운송, 인력수급이 용
이한 (주)영일케미컬 대전공장(공장장 金虎培)
을 찾았다.

45명의 임직원 구슬땀, 방문객 줄이어

“영일케미컬의 주인이 농업인이라는 생각을
단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생산 자동화
라인 구축으로 고품질 제품생산 및 적기 공급 실
현이 가능합니다. ‘당일수주 당일출고’를 원칙
으로 농업인 위주의 맞춤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천
봉지라도 즉시 생산 공급이 가능한 소량생산 체
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농약민원의 제로화
를 위해 민원발생시 즉시 제품을 회수, 분석한
후 피해농민에게 직접 해명하는 시스템도 갖추
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 입사해 28년 동안 영
일케미컬(주)의 변천사와 궤를 같이해 온 金공
장장의 소회와 일성이다.

1956년 자본금 50만원으로 출발한 영일케미
컬의 이력은 최근과는 많이 달랐었다. 그러던 지



난 2000년 8월 남해화학과의 M&A이후 적지 않은 변화와 노력으로 지금에 이르러 있다. 2001년 대전공장에 투자비 72억원을 들여 최신 식 입제공장을 준공했고 56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건립하였으며 2004년 매출액 1000억원을 일궈낸 이후 3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루고 있다. 수화제 및 유·액제 3개라인과 입제 2개라인, 액상수화제 및 분제가 각각 1개라인, 분쇄 1개라인 등 총 11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8시간 기준하여 193.7톤, 연간 180일 기준하여 35,000톤 생산이 가능한 규모이다. 관리 생산 QC 물류팀 등에서 총 45명의 임직원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현재 생산량은 목표량의 97.3%에 이르고 있다.

2005년 9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과 함께 수용인원 130명 규모로 건립된 홍보관은 제품세미나 교육은 물론 연구소와 연계, 선진기술 보급으로 농업인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며 유관기관 및 지역민 요구시 무료 개관함으로써 농약안전성 홍보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만도 2500여명 이상의 농업인이

방문하였으며 5천여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 옥천에 10,200여평의 시험부지를 매입,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총 면적 330여평 규모의 신축 연구소는 생물 및 농약잔류, 제형 연구 수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생물 시험포장으로 수도 시험포장 3,300평, 전작 시험포장 2,600평, 과수 시험포장 2,900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유리온실 60평, 농기계 창고 100평, 관리사옥 25평 등 시험수행 요건이 망라되어 있다.

저가농약 공급, 농업인에 실익 제공

금공장장은 제조환경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생산현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이 바로 제조환경 부문”이라면서 “각 라인별 악취방지를 위해 흡착탑 설비 8기와 분진방지 설비(Bagfilter)가 총 13기 설치되어 있다. 또 매년 6~7회 활성탄을 교환하는 등 완벽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막연한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어 일년에 2회씩 산업안전공단의 감사를 받아 공정안전(PSM)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 이행단계를 점검 받고 즉시 시정하고 있다”며 반론을 편다.

그러면서 금공장장은 “또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협회에 의뢰, 근로자 안전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방지교육, 소방훈련 등 관리감독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부연 설명한다.



또 최근 일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사업에 대해 金공장장은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시설 및 분석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벤처업체들과 OEM 방식으로 사업에 진출, 치나지 서방형입제 및 영일프리미엄, 이루미, 베리메이트, 한자락, 영일 아그리포스, 잠잠 등 7품목이 출시되었다”면서 제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다.

앞선 기술, 고도성장, 환경친화, 고객중심의 슬로건으로 지난 2001년부터 펼치고 있는 ‘아그로탑 21운동’에 대해 짧지 않은 설명을 마친 金

공장장은 끝으로 “국내 순수 토종기업으로서 농민 선호도가 높은 신규 저독성 친환경농약의 지속 확보를 위해 오리지널 원제사와의 관계 구축은 물론 최신식 살균·살충 전용 입상수화제 라인 신축 검토와 제초제 전용 최신식 액상수화제 시설 확충, 신규 개발약제 분석에 따른 최신식 분석기기 확보 및 전문가 육성, 원가절감에 주력함으로써 고품질 제품의 저가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미니 인터뷰

金虎培 공장장

■ **농협과 하나 된지가 벌써 수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약산업에 기여한 부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농협의 농약사업 참여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만, 영일케미컬 인수목적은 농업인에게 저가의 농약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또 국내 농약시장의 유통구조를 지역농협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약가격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2001년 이후 가격인하 효과는 물론 시장점유율도 상당 부분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일케미컬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속에서도 우리 농업인을 보호하고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최근 분제농약의 오용사고가 있었는데요. 분제농약 뿐만 아니라 여타 농 약의 오용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바와 같이 색소 및 구토제 첨가는 물론 취급제한 기준 강화, 농약보관함 설치 유도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포장단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3kg의 제품은 사용하고 남은 농약의 부주의한 보관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500g, 1kg 등 소량단위로 포장함으로써 소비자가 가능한 1회에 완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액제 농약의 소포장 단위에 대한 파일그림 등을 삭제하여 파일음료와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대체 약제개발과 함께 사용자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올해 주요 계획 및 실적은?**

난마처럼 얽힌 각종 국제적 현안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으로 인해 농약업계도 하향산업으로 분류되어 해를 거듭될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경감을 위해 생력화 체형과 친환경농약 및 제제를 연구, 개발하는데 인·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반기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및 복지시설 조성에 진력할 계획입니다.